

총장-뉴스레터 – 92 (2024-10-25)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 10-12 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 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여호수아 12:7)

‘여호수아서’의 첫 아홉 장에서는 여리고 옆 요단에서부터 가까운 산지의 기브온까지 이르는 좁은 지역에서 벌어진 가나안 땅 정복을 개별적으로 다루었다. 이 모든 일은 나중에 벤냐민 지파가 차지한 영토에서 일어났다. 다섯 왕들이 동맹을 맺음으로써 예루살렘 서부와 남부 지역이 이제 시야에 들어온다. 야호수아 10-11 장은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의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12 장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10-11 장은 여리고, 아이, 벤엘을 이은 가나안 정복전쟁의 남은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가나안 남부 점령: 기브온을 위하여 싸운 전쟁 (10:1-15)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다음 몸소 적을 혼란에 빠뜨리시고 또 우박이라는 자연 사건을 통하여 도우시는데, 이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람의 칼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이 입증된다. 본문에서 분명해지는 것은 이스라엘이 제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전쟁 이야기 한 가운데에 ‘야살’의 책에 있던 노래의 단편이 들어 와 있는데, 드보라의 노래에서 별들이 이스라엘의 적들과 싸우듯이(삿 5:20), 하늘과 땅의 하나님은(2:11) 여기서도 하늘 세력들을 부리신다. ‘야살’의 책은 사무엘하 1:18 에도 언급되고 있으나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아마도 영웅들의 전기나 그들을 찬양하는 노래나 시를 모아 둔 책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스라엘의 갑작스러운 출현으로 아모리 왕들을 놀라게 하고 당황하여 도망가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늘에서 돌과 우박을 쏟아 내리셔서 도망가는 그들 가운데 많은 수가 죽게 했다. 이스라엘은 벰호른 길에서 이들을 추격하였으며, 이들을 무찌르는 데에 시간이 부족하였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해와 달을 멈추게 해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이 대적을 섬멸할 때까지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신다.

메롬 전투의 승리와 북부 가나안 정복 (11:1-15)

남부 가나안의 임금들처럼 북부 가나안의 임금들도 반 이스라엘 동맹을 맺는다. 이 동맹의 수도인 하솔은 납달리 지파의 땅에 놓여 있다. 엄청난 군인이 동원됨으로써 이 싸움은 결전의 성격을 띠게 된다. 애굽 사람들처럼 북부 가나안 사람들도 말이 끄는 병거를 타고 싸운다. 이스라엘이 갑자기

공격하자 적들은 병력을 전혀 출동시킬 수 없었다. 여호수아는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 말들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적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가장 현대적인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요단강은 그 물길을 따라 두 수역을 지나 결국 한 수역에 흘러든다. 가장 남쪽에 있는 최대 수역은 사해다. 사해에서 북쪽으로 약 65 마일 거리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으며, 거기서 다시 12 마일 북쪽에 흘레 호가 있다. 대개는 이 흘레 호를 '메롬 물'로 본다. 흘레 호는 요단강 강으로 이어진 세 수역 중 가장 작는데, 길이 4 마일 너비 반 마일에 불과하다.

온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손에 떨어지다 (11:16-23)

온 땅이 이스라엘의 손에 들어 왔다. 이스라엘이 점령한 산지는 남부 유다 산지와 중부, 북부의 산지를 포함한다. 이스라엘은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가나안 주민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한다. 아낙 사람들의 산지까지 점령하였다. 아각은 한 때 이스라엘 정탐군들을 공포와 경악에 빠뜨려 가나안 정복의 첫 시도를 실패하게 한 장본인들이었다. 이들이 멸절됨으로서 가나안 땅은 마침내 이스라엘 차지가 되었다.

13 장에 기록된 왕들의 명단은 아직 언급된 바 없었던 지명들도 포함하고 있다. (10 절의 예루살렘은 다윗에게 비로소 정복된다). 우선 중부 가나안에서 남부로 내려간 다음 16 절부터 북부로 가면서 이름을 열거한다. 이 가운데 몇몇 왕국은 애굽의 아메토피스 4 세(주전 1375-1358 년)의 서신에서 애굽의 봉신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 성읍 군주들의 권세가 꺾임으로써 가나안 신들의 권세도 꺾였다.

생각하기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가나안 일곱 복속에 대한 언급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성읍을 명기하거나 나라나 왕들을 거명하신 적이 없다. 이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과 성읍과 왕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심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구체적인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